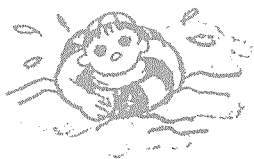


수영장 질병관리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하여 찾게 되는 수영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한 신체의 대부분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주위 사람들과 접촉이 빈번해지기 쉬운 곳이다.

따라서 사람들사이의 직접 접촉이나 물을 통한 간접 접촉 그리고 일광에 대한 과다 노출 등으로 말미암아 각종의 눈병, 귀병 등이 쉽게 발병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전염성질환 이외에도 일광에 의한 피부 화상에 특히 주위를 하여야 한다.

1. 눈병

1) 유행성 각결막염

이 질환은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데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즉, 극장, 수영장, 학교 등을 매개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수가 많다.

보통 하루 또는 일주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눈에 충혈, 동통과 눈물을 흘리게 되며 눈속에 이물감이나 작열감을 느끼기도 하며 심한 경우 특히 어린아이에게서 흰자위 부위에 위막(偽膜)이 생기기도 한다.

2) 급성 출혈성 결막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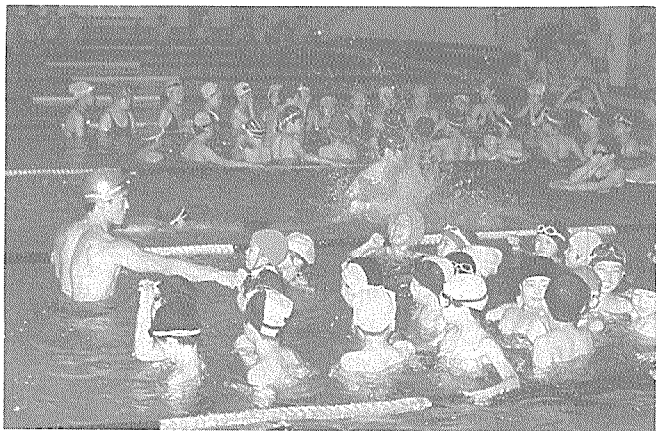
이 질환은 엔테로 바이러스(70형)나 콕사키 바이러스(A24형)에 의해 야기되는데 짧은 잠복기(8~24시간)와 짧은 경과시간(5~7일)이 특징이다.

증상은 갑작스럽게 눈에 통증을 느끼거나 이물감을 느끼며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외에도 결막출혈, 안검종창, 결막하 출혈, 결막여포를 보이는 수도 있는데 특히 결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상안검에서 시작하여 하안검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3) 인두 결막염

아데노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어린이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찾게 되는 수영장에서는 각종 눈병, 귀병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이 질환은 염소 처리된 수영장에서도 옮겨 질 수 있다.

증상은 약 1주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38.5℃~40℃의 고열과 함께 인후통과 유행성 각결막염 때와 비슷한 여포형성이 일어난다.

또한 귀앞, 턱밑의 임파선이 부어 오르고 인두가 충혈되며 결막에 위막이 생겨 충혈되기도 한다.

4) 치료 및 예방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들은 독감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2차적인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광범위 항생제 점안약이나 연고를 사용하고 기타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을 실시한다.

간혹 회복기나 질환의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스테로이드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서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환들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므로 환자가 만진 물건 등은 끓여서 열탕소독을 한 후 사용하며, 수영장 관리자는 하루에 3회이상 물을 갈아 깨끗한 물을 유지하고 염소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눈병이 있는 환자들은 입장시키지 말아야 한다.

한편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이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수영을 한 후에는 맑은 물로 온 몸과 눈, 손을 씻어야 하며 눈이 거북하다고 마구 비비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손을 닦도록 서비스로 제공하는 물수건으로 함부로 눈을 닦아서도 안된다.

알콜이나 봉산수로 손을 닦는 것이 좋다는 보고도 있으나, 항상 손을 물로 깨끗이 닦아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이 질환은 유행할 때는 물론이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므로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귀병

1) 외이도염

흔히 물놀이 귀병이라고도 불리우는 외이도염은 수영장에 혼한 질환 중의 하나이다.

이 질환의 원인은 대부분 귀에지가 있는 귀 속에 물이 들어 가면 불어나서 귀를 막게 되며 주위의 연한 피부조직에 자극이 되어 염증을 일으킴으로써 야기된다.

염증의 원인이 되는 세균은 주로 녹농균, 포도상구균과 대장균들로서 덥고 습한 환경에서 외이도염을 야기시킨다.

외이도염의 특징은 귀에 심한 통증이 있으며 귀이도가 붓는 수도 있다.

간혹, 묽은 물이 나오는 수도 있으며 청각장애 및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가 올 수도 있다.

이러한 외이도염은 수영장의 위생관리와 본인의 청결에 의해서 예방될 수가 있는데 즉 수영을 하기 전에 귀에지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제거할 것과 또한 귀를 청결하게 한다고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줘 손상을 입히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중이염

중이염을 앓고 있는 환자인 경우는

염증이 있는 고막을 통해 불결한 물질이나 세균들이 쉽게 중이로 들어 갈 수가 있어 염증을 악화하여 청력손실이나 어지러움증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중이염은 외이도염보다는 통증이 약해서 환자들이 무관심할 수가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이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 수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귀마개를 준비하여 귓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 물의 관리

수영장에서의 물의 관리는 위에서 언급한 질환의 예방에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즉 무덥고 습한 계절에는 수영장 물에서 여러가지 병원균의 증식이 왕성해지며 이들은 물의 표면에 존재하고 있으며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양의 염소로는 살균되지 않는 수가 많다.

특히 염소 농도는 정확히 하여야 하며 유효 염소농도는 0.4~0.6ppm이어야 한다. 수소 이온 농도 즉 PH는 6.5~8.5가 적당한 조건이 될 수 있으며 강력한 염소 처리는 오히려 인체에 유해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어떤 원인으로든지 수영철 후에 귀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불쾌한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다. (92.7.17자 보건주보)